

기후위기 시대 '대표 불 축제' 변화 요구

25회째 제주들불축제 '기후재난' 이슈에 논란 확산 "산불 주의 재난문자 발송... 전면 폐지해야" 목소리 제주시 "발전포럼·시민평가단 의견 반영 개선 계획"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 대응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기에 불 축제를 개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제주시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불 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오늘(9일)부터 4일 동안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등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8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을 세우라'며 '들불축제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되고 불씨 관리에 유의하라는 재난문자가 전 국민에게 발송되는 때에 들불축제가 열린다면서다. 이들은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세계 도처가 불타는 마당에 불 구경하자고 생명들의 터전에 불을 놓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오름 훼손, 생태계 파괴, 발암 물질,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등의 산적한 문제와 함께 기후재난 앞에 탄소배출을 늘리는 퇴행적 축제는 과감히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새별오름

에 터를 잡은 것은 4회 축제부터다. 그동안 이 축제는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등으로 이름을 올리며 성과를 떠온 반면 오름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제가 멈춘 것을 제외하면 매해 오름에 불이 타올랐다. 그러다 지난해 강원·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영향으로 들불축제 취소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중단됐다.

하지만 수십만 제곱미터의 오름을 활활 태우는 들불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경도 정책국장은 "당초 전통문화축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IMF 시절에 시작된 축제지만 지금은 오름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불을 내서 북을 비는 행사로 변질됐다"며 "더욱이 화산이 만

든 오름을 보존 대상으로 정해놓고도 새별오름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시는 최근 들불축제 사후 평가 시 관광객 유입 등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둔 반면 오름 관리 방안은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제주시가 들불축제를 위해 지난 10년간 벌인 각종 편의시설 공사는 30여 건에 투입 예산만 1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불을 놓기 위해 석유를 사용했던 것은 아주 오래전 정월대보름에 맞춰 축제를 진행했던 당시의 일"이라며 "올해는 축제장에서 '들불축제 발전포럼'을 열어 오름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평가단도 처음 모집해 그 내용을 향후 축제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성산읍 갯벌식생복원사업 착수

광치기해변 일대 144억원 투입... 2025년 마무리 어제 주민·용역사·해양환경공단 착수보고회 개최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염생식물인 갈피와 순비기나무를 심어 해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성산읍 갯벌식생복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모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비 144억원(국비 101, 도비 43)이 투입된다. 염분에 강한 갈피와 순비기나무를 식재해 해안변과 울레길 등의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5년까지 사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갈피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성산읍 시흥·오조·성산·고성·신양리 등 5개 마을이며, 탐방로 조성 및 양묘장 설치도 이뤄진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도민은 물론 관광객과 울레길이 많이 찾는 오조리해변, 성산리 내수면, 고성리 광치기해변, 고성리 신양해변 등으로 올해 1·2코스 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8일 성산읍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위원 및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협의체와 논의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백금탁기자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참가 기업 24일까지 모집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부가 시행하는 '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이번 지원사업의 3가지 성장유형(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 중 로컬브랜드 유형을 맡아 125개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이후 1차 오디션을 통해 40개 기업을, 2차 오디션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발한다. 박소정기자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 성장·공정 이끈다"

어제 도청서 2023 지방공공기관장 직무성과계약 체결식 지방공공기관장 직무성과계약 체결 및 혁신계획 발표



8일 제주도청서 2023년 지방공공기관장 직무성과계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강희만기자

제주도가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각 기관장들과 올해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는 향후 달성 정도 평가에 따라 기관장 연봉 결정 및 연·해임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도 산하 14개 지방공공기관장들과 올해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특히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제주형 공공혁신 시스템'에 나선다고 밝혔다. 혁신계획의 4대 기본

방향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체계 개편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구조개혁을 통해 자율적·합리적 진단을 토대로 기관 통·폐합 및 조직·기관별 정원조정이 이뤄진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부채 조기상환 및 수익 다각화 ▷미사용 자산 매각 및 유휴 청사 공간 임대 ▷불합리한 임금인상 억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이 추진된다.

또 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성과계약 중심으로 기관장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와 도정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하위직급 임금 현실화 및 인사적체 구조 해소 ▷인사·회계 등 공통업무에 대한 표준지침 제정 ▷공공기관 업무 표준화를 지원하는 표준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진다. 강다혜기자

진로·기초학력 서귀포시 교육 협력 강화

교육지원청에 서귀포시 특화 사업 17억 지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 '서귀포시 교육 특화 프로그램' 등 교육으로 변화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서귀포시에서 지원받는 서귀포시 교육 특화 프로그램 예산은 역량 강화, 진로 지원, 기초학력 강화, 읍면 소외 지역 격차 해소 등 4개 분야 9개 사업을 합쳐 총 16억6800만원이 넘는다. 전년도 16억45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들 사업을 포함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이 협

력하는 사업은 총 22개에 달한다. 교육지원청은 올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관련 서귀포시와 연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북스타트,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찾아가는 문해력과 독서역량 프로그램, 방학 중 다문화학생 책 읽어주는 선생님, 다문화학생 문해력 향상 반려책 제공 등에 나선다.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와 학생건강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교실 운영, 건강체조 영상 보급, 건강특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인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